

코로나19 대출금으로 '포켓몬 카드' 산 남성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한 남성이 코로나19 구제 대출을 이용해 무려 5만 7,789달러의 '포켓몬 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발각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 사진=shutterstock

미 연방경찰은 지난 19일, 조지아주의 비나스 우돔신이 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하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에 자신의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와 회사의 총 수익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8만 6,000달러를 받아 이중 5만 7,789달러는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몬 카드는 최근 수집가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의 지난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미국 내 트레이딩 카드 판매량은 2019년보다 142%

증가했다. 가장 인기있는 카드는 포켓몬 카드로, 지난해 포켓몬 트레이딩카드의 판매량은 직전 해보다 576% 증가했다.

이번에 체포된 남성이 포켓몬 카드 수집가였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켓몬 카드' 세트의 온라인 가격은 소매가의 10배까지 급등한 최근 추세로 미뤄봤을 때 재테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남성이 급여 지급과 임대료 등의 사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제 피해 재난 대출금을 포켓몬 카드에 구입해 사용한 것을 비난하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 및 보조금의 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며 "이 남성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0년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급여 지급과 임대료 등의 사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제 피해 재난 대출금을 포켓몬 카드에 구입해 사용한 것을 비난하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 및 보조금의 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며 "이 남성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0년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슈퍼카를 희귀 난초와 교환한 청년

초고가의 슈퍼카를 희귀 난초와 교환한 베트남 청년의 사연이 화제다.



▲ 사진=nownews

베트남 다낭에 사는 청년인 또한 씨는 지난 25일 현재 공시가격이 320억동(한화 약 16억 4,800만원)인 자신의 슈퍼카를 희귀 돌연변이 난초와 교환했다. 또한 씨는 난초와 물물교환을 한 슈퍼카에 대해 올해 6월 직수입한 차량으로 몇 달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280억동가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씨가 그의 초고가 슈퍼카와 맞바꾼 난초는 12m 길이의 희귀 돌연변이 난초다. 이 난초는 희귀 난 중 최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씨의 아버지는 희귀 품종이 많은 난초 정원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씨는 "이번에 교환한 슈퍼카 외에 또 다른 슈퍼카가 있다"면서 "난초를 좋아하고, 투자하고 싶다. 이번에 구한 난초는 몇 년 후에 슈퍼카 2~3대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소 돌연변이 희귀 난과 슈퍼카 두 가지에 관심이

이 높았는데, 여건상 주로 난초 투자에 집중해왔다"면서 "오늘은 난초를 슈퍼카와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13일에도 다낭에서는 210억동 상당의 벤틀리 벤틀이가 슈퍼카를 희귀 돌연변이 난초 두 그루와 교환 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그 주인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년 반 동안 친자 21명 얻은 백만장자 부부



▲ 크리스티나 오즈투르크와 그의 남편 갈립 오즈투르크는 올해 동안 21명의 자녀를 얻었다. 사진= thescottishsun.co.uk



▲ 크리스티나 오즈투르크(오른쪽)와 남편 갈립 오즈투르크(왼쪽). 사진= thescottishsun.co.uk

러시아 출신의 백만장자 부부가 한 해 동안 대리모를 통해 무려 21명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사연의 주인공은 조지아 남서부 휴양지인 바투미에 사는 24세 여성 크리스티나 오즈투르크와 호

텔 소유주인 백만장자 갈립 오즈투르크(57)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리모를 통해 21명의 자녀를 얻었다. 21명 모두 생물학적으로 두 사람의 자녀인 것이다. 21명의 아이 중 첫째는 지난해 3월 10일에 태어났으며,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이는 현재 생후 3개월이다.

크리스티나는 "남편이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갖고 싶어해서 대리모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아이 21명을 낳기 위해 고용한 대리모에게 지급한 비용은 한화로 2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 21명을 키우기 위해 보모 16명을 고용했다.

크리스티나는 "우리는 모든 자녀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편은 100명의 자녀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자녀를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21명이 조금 크고 난 후에 다시 대리모를 통한 아이 출산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모와 임신 후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친분을 만들거나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면서 "대리모와의 모든 의사소통은 클리닉을 통해 이뤄지며, 우리는 대리모의 건강을 위한 식단 등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